

“중동 침대축구 꺾을 비책은 빠른 선제골과 다득점”



“손흥민 왔어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앞둔 손흥민이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벤투호, 내일 이라크와 대결
7일에는 바레인과 2차전
손흥민·황의조 등 해외파 총동원
시간끌기 전술 뚫고 승점 쌓아야

“침대 축구”는 핑계일 뿐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상대가 그라운드엔 누울 틈을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이른 선제골과 다득점이 필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0위 이라크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 홈 경기를 펼친다. 레바논과 2차전은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벤투호는 지난 6월 마부리니 2차 예선에서 6전 무패(5승 1무·22득점 1실점) 행진을 앞세워 당당히 조 1위로 최종예선에 진출하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FIFA 랭킹 36위인 한국은 최종예선 B조에서 이란(26위), 아랍에미리트(UAE·68위), 이라크, 시리아(80위), 레바논(98위)과 한 조에 묶여 1~2위 팀에 주어지는 ‘본선 직행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카타르로 가는 힘든 여정’의 상대가 모두 중동팀으로 구성돼 ‘침대 축구’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최종예선 상대 중에선 침대 축구로 지목하기 어려운 나라도 있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는 예외로 봐야 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남태희가 31일 경기 파주트레이닝센터(NFC)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는 최종예선 1, 2차전 홈 경기를 위해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 이재성(마인츠),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문환(LAFC), 황인범(루빈 카잔), 남태희(알두하일), 김민재(페네르바체), 손준호(산둥 타이산), 김영권(감바 오사카) 등 핵심 해외파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여기에 최근 K리그 무대에서 발끝 감각이 물이 오른 이동경(울산)을 비롯해 조규성(김천), 송민규(전북) 등 젊은 K리그 공격수들과 이용(전북), 홍철(울산), 박지수(김천), 이기제(수원) 등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들도 호출했다.

최종예선은 매 경기가 결승전으로 생각될 만큼 승점 관리가 중요하다.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

지만, 패배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야만 한다.

이라크와 최종예선 첫 대결 결과는 대표팀의 사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만 한다. 벤투 감독 역시 이라크전 중요성 때문에 ‘해외파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국은 이라크와 역대 상대 전적에서 7승 11무 2패로 앞선다. 1984년 4월 LA 올림픽 최종예선전에서 0-1로 패한 이후 한국은 최근 10경기(4승 6무) 동안 지지 않았다. 하지만 무승부 경기를 돌아보면 2-2 무승부 두 차례, 1-1 무승부 한 차례, 0-0 무승부 3차례(2007년 아시안컵 4강전 승부차기 패배 포함)로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라크와 대결에서 ‘침대 축구’는 사실상 볼 수 없었다.

이라크는 2차 예선 C조에서 이란(6승 2패)에 이어 5승 2무 1패의 준수한 성적으로 조 2위를 차지하며 최종예선에 올랐다.

무엇보다 이라크 대표팀의 사령탑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본선 무대에 나선던 딕 아드보카트(네덜란드) 감독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성향을 볼 때 한국을 상대로 ‘시간 끌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은 적다. 이라크 선수들 역시 중동의 강팀이라는 자존심이 강한 만큼 벤투호와 강하게 부딪힐 전망이다.

벤투호는 흑시라도 모를 ‘침대 축구’를 피하기 위해선 이른 선제골이 중요하다.

중동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남태희(알두하일)도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집중해서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오면 꼭 살려 득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벤투호 공격진의 핵심 전력인 손흥민과 황의조가 31일 오후 늦게 벤투호에 합류해 실제로 동료와 호흡을 맞출 시간이 9월 1일 하루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박찬호 실패했는데 ... 윤석민은 성공할까

KIA 야구선수 출신 윤석민 골프 도전
KPGA 대회 출전...컷 통과 여부 관심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리스트인 윤석민(35)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정규 대회에서 골프 실력 발휘에 나선다.

윤석민은 2일 나주의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하는 KPGA 코리아투어 제2회 비즈플레이-전자신문오픈(총상금 6억원)에 추천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다.

이번 시즌 KPGA 코리아투어에서 전직 야구 선수가 정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코리아 특급’ 박찬호(48)가 4월 군산CC 오픈, 7월 아마하·오너스 K오픈 등 두 차례 출전했지만 모두 최하위로 컷 탈락했다.

윤석민은 2005년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지명으로 KIA 타이거즈에 입단, 2019년 은퇴할 때까지 통산 77승 75패 86세이브, 평균 자책점 3.29를 기록했다. 2019년까지 현역 선수로 뛰었고 올해 5월 뒤늦은 은퇴식과 함께 그라운드를 떠났다.

야구 선수로 활약할 때부터 골프에 재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윤석민은 지난해 말에는 정푸드코리아와 후원 계약을 하고 KPGA 2부 투어 도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석민도 박찬호처럼 컷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하위를 면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KPGA 코리아투어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1위를 달리는 김주형(19)을 비롯해 지난해 우승자 이원준(36), 대상 포인트 2위 박상현(38), 전역 후 세 번째 대회에 나서는 이형준(29) 등이 출전한다.

상금 2위 이준석(호주)과 김경태(35), 최호성(48), 장이근(28) 등이 주목할 선수들로 거론된다.

올해 11번째 대회에서 첫 시즌 2승 선수가 나오지도 못한 포인드.

대회 첫날인 9월 2일 1라운드 조 편성 결과를 보면 오전 11시 30분 1번 홀(파5)에서 이원준, 박상현, 서요섭(25)이 한 조로 출발하고, 김주형은 장이근, 강경남(38)과 함께 오전 7시 50분 10번 홀(파4)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윤석민은 오전 8시 40분 1번 홀에서 현정협(38), 이근호(38)와 함께 1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윤석민 은퇴식. /연합뉴스

류현진·김광현, MLB 가을잔치 참가 어렵다

토론토·세인트루이스 확률 낮아

올 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에서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활약상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30)을 제외하면 MLB에서 뛰는 대다수 한국 선수들은 정규시즌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의 소속 팀인 토론토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은 30일 현재(한국시간) 단 7.5%다.

토론토는 68승 61패 승률 0.527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지구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는 탬파베이(82승 48패 승률 0.631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뉴욕 양키스(76승 54패 승률 0.585), 보스

턴 레드삭스(75승 57패 승률 0.568)가 뒤를 잇는다.

토론토는 1위 탬파베이에 13.5경기 차로 뒤지고 있고 3위 보스턴과도 5.5경기 차가 난다.

토론토는 양키스와 보스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소속 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72승 59패 승률 0.550) 중 최소한 두 팀을 제쳐야 한다.

반면 최지만은 ‘가을잔치’에서 볼 수 있을 확률은 매우 크다. 팬그래프닷컴은 탬파베이의 포스트시즌 진출 확률을 99.6%로 매겼다.

김광현이 포스트시즌에 나설 가능성은 류현진보다 더 적다. 세인트루이스의 가을잔치 진출 확률은 4.8%다. 세인트루이스는 66승 63패 승률 0.512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를 달리고 있다.

내셔널리그는 서부지구에 속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6할대 승률을 기록하며 지구 1위 티켓과 와일드카드 티켓 한 장을 사실상 확보했다. /연합뉴스

‘대세’ 박민지, 시즌 7승 도전

KLPGA 이데일리오픈 출전
최혜진·박현경 등과 대결

2021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대세’ 박민지(23)의 우승 행진이 최근 주목된다.

박민지의 마지막 우승은 지난 대보 하우스디 오픈에서였다. 이제 7주가 지났을 뿐이지만 새 우승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7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3위, 8월 국민은행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시즌 7승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다.

오는 3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용인 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6722야드)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7억원)이 박민지의 시즌 7승 무대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 12억5655만7500원을 기록 중인 박민지는 이 대회 결과에 따라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쓸 수도 있다. 우승 상금 1억2600만원을 추가하면 박성현(28)이 보유한 기존 기록인 13억3309만원에 넘어선다.

다승과 상금은 물론 대상포인트에서도 1위를 달

리는 박민지는 “지난 우승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최대한 많은 우승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꼭 우승해 최다 우승 경신에 한 발짝 가까워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3라운드 대회이니 처음부터 선두로 치고 나갈 예정이다. 1라운드에 꼭 톱10에 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주 메이저대회인 한화 클래식에서 준우승하며 부활을 알린 최혜진(22)은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을 노린다.

오지현(25)과 장하나(28), 박현경(21) 등 KLPGA 투어 강자들도 총출동한다.

많은 팬을 거느린 유현주(27)와 안소현(26), 야마우치 강자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8월 일회한 성은정(22)은 추천 선수로 출전한다. /연합뉴스